

	보도자료	
2026. 8. 31.(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정보보안팀 박강일 팀장(전화: 061-820-1430, 전자우편: pki@kisa.or.kr) 정보보안팀 김정훈 선임(전화: 061-820-1433, 전자우편: security_jh@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실전형 모의해킹 대회 개최

- 지능형 위협 대응 ·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위해 민·관·학 협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챌린지」 경진 대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원에서 개최했다고 2026. 8. 31.(월)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제 공격 상황을 가정한 모의해킹을 실시해 보안 취약점과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대학생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전형 사이버보안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정보원 지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대회 기획부터 환경 구축, 운영까지 전반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대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대학교 학생들이 3인 1팀을 이뤄 참여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발굴하고 영향도를 분석했으며, 이에 대응해 각 기관 보안 담당자는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복구 등을 수행하며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대회 결과, 취약점의 중요도와 활용 가능성, 영향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 3개 팀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전남대학교 김경준, 양시은, 조아영으로 구성된 탈주닌자팀이 차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근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대회는 지역 대학생과 기관 보안 담당자가 함께한 실전형 경진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와 공공기관, 대학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경구 운영지원단장은 “전파 이용, 방송·통신 진흥, 국가기술자격검정,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관리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 보안 인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